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사람이 떠난 후, 눈시울이 붉다(II)

**눈** 시울이 붉다  
 눈시울이 붉어지게 하는 '사람'을 떠 울려 본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다. 하늘나라로 소천하신 아버지, 요양원에서 간간 시간 자식 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다 못해 눈물이 앞을 가린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유난히도 추웠던 어느 해 1월, 막내 아우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 가져온 절망은 지금도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다. 그때, 나는 이미 사람이 떠나면 무엇이 남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돌에 숨 붙여넣는 일 하는/ 첫째와 /바람 부는 날 골라 잡 짓는/ 돌



박 여 범

충북중학교·교감·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제가 그동안 너무나 일에 치여 바빴나 보다. 빨랫줄에 널려 있던 고추장 찹국나루의 고소함도 잊은 채 시간은 사람이 떠난 현실의 안타까움을 노래한다.  
 /마당 한구석에 묵묵히 자리 잡은/ 영두나무, 자목련도/ 가시박 덩굴

에 갇힌 채 사람이/ 그리워 기다림으로 세월을 낚고 있다. 이 시를 읽는 사람은 눈시울이 붉을 수밖에 없다.  
 시인은 시골집을 /저 허리 꺾인 마당 한구석에 묵묵히 자리 잡은 것'들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아직까지 습한 습눈썹 달고 있는 이유 무엇인가/ 주인이 구를 떠나 집 나설 때/ 덩달아 살강까지 까지 집으로 발길 옮긴/ 저 수저, 녹으로 푸르게 엮여 있는 걸 보니 알겠다/는 심세함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적 표현으로 고향 집 마당에서 있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시인은 누구나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때가 되면, 보내고도 보내지 못하는 일이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된다.  
 위의 시는 이런 안타까움을 /뒤결 감나무, 눈물 마른 흥시 보니/알겠다. 긴 한숨과 함께 바라본 지붕도 없이 잠초대미가 된 시골집을 바라보며/살려는 글쟁이겠다/는 짧은 글로 심금을 울리고 있다.

독자재언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함을 꼭 명심하자

코로나 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모임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 시간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농촌사회, 근로직 현장, 친구나 지인들의 모임 술자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 근처나 주거지 근처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부 운전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진 것으로 오해를 해 단속을 하지 않고,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음주운전 검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가 음주 감지기에 직접적인 호흡을 하지 않아도, 공기 중의 알코올 입자를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해 단속하고 있다.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일부 운전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 검문식이 아닌 '스팟식 단속'을 통해 장소를 계속해서 변경하며 단속을 하고 있고,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편이 아니라 주간 시간대에도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음주

단속에 걸릴 확률이 줄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제2 음향회법 시행 이후,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하향됨에 따라 단속되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으며, 처벌의 강도 또한 높아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의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바로 잡는 것 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전날의 과음으로 인한 '숙취 운전'이다. 일반적인 남성이 민취 상태에서 6시간을 자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인 것을 고려하면, 다음날 아침이라도 스스로가 술이 깨었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운전을 지양해야 한다.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무심코 잡은 운전대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면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을 꼭 명심하자.  
 하결전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천연 화장품으로 이마에 CDM 그린 미얀마 시위대



26일 미얀마 양곤에서 이마에 미얀마 전통 천연 화장품 '타나카'로 시인 불복종 운동 'CDM'이라고 쓴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대가 모여 앉아 있다.

**사설**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문제**  
 주한미군과 관련된 방위비 협상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첫 협상은 이미 시작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은 한국 분담금의 50%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해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출범 2주 만에 협상이 시작됐다.  
 한미 양국이 신속한 협상 타결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부담할 몫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 5일 화상으로 진행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정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결렬된 지 11개월 만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 만큼 그 간의 이견도 좁힐 수 있을 것이라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양국은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한미 양국은 다음 달까지 타결 짓기로 했다.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무급 휴직 문제가 또 불거지기 때문이다.  
 협상은 지난해 3월 트럼프 행정부 때 잠정 타결됐던 지점부터 출발했다. 2019년 분담금인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안에서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협상안을 보고 입장을 정하는 단계다. 구체적인 요구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바마 정부 때는 기준을 불가 상승률만큼 인상하되 상한선을 4%대로 잡았다. 트럼프 때 협상 안인 13%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지우기'의 상징적인 의미로 한국에 대해서 동맹 복원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액수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방위비 협상은 한국과 동맹을 어떻게 강화할지를 고민해 진행해야 한다. 협상 기한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동맹 관계를 위해 5년 단위로 해야 하는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K방역과 외신에 눈 돌리는 정부**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K방역에 대해 해외 언론의 관심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정부도 이런 상황에 발맞추어 해외 홍보 기능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섰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해외 언론 즉 외신 대응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기회를 잘 활용하면 '아시아 미디어 허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는 일이 잦은 만큼, 외국 언론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은 지난달 초 해외 언론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청와대 내부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고 언급하면서 '외신 대응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모든 부처에 내렸다. 정부가 해외 언론 대응 비중을 높이기로 한 1차적 이유는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 대응에서 지표상 좋은 평가를 받은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